



거리두기 해제 후 첫 연말... "온정 타오른다"

대한적십자사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에게 손길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 첫 연말을 맞았다. 차츰 일상이 회복되고 있지만 팬데믹 장기화로 관심과 도움이 절실한 사람은 훨씬 늘었고 돕는 사람은 내내 크게 줄었으니, 소외된 이웃에게는 울겨울 역시 혹독한 겨울이 될 것 같다. 그럼에도 이맘때면 '사랑의 온도탑'이 웅장한 모습을 뽐내고, 지나는 이들의 옷깃엔 사랑의 열매가 달리며, 매해 나타나는 '얼굴 없는 천사'도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지역사회에 포근한 연말을 선물한다.

▶기부로 '사랑의 온도' +1 =따뜻한 손길이 절실한 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일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제주시 노형 오거리와 제주도청 로비 앞에 매해 설치되는 '사랑의 온도탑'의 수온주는 현재 10.3℃(모금액 약 4억1700만원)를 가리키고 있다. 사랑의 온도탑 온도는 목표액의 1%가 모금될 때마다 1℃씩 올라간다. 이번 캠페인 목표액은 지난해 38억8400만원 목표액에서 4% 상승된 40억4000만원이다. 지난해의 경우 캠페인 모금액 총 42억9000만원으로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다.

기부 방법은 간단하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도내 방송사에 마련된

접수창구 또는 도내 금융기관과 약국, 읍·면·동주민센터 등에 비치된 사랑의 열매 모금함을 통해 성금을 내면 된다. 전화(060-700-0009·건당 3000원)나 문자 기부(#9004·건당 2000원)를 통해서도 나눔에 참여할 수 있다. 올해 캠페인은 이달 1일 시작했으며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 동안 진행된다.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서도 희망나눔 모금 캠페인으로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제주적십자사의 2023년도 모금 목표는 집중모금 9억3000만원, 정기후원금 15억원, 사회협력 기부금품 15억5000만원, 기타 수입 7억2000만원 등 47억원으로 지난해 41억원보다 6억원 증가했다.

희망나눔 모금액은 자연재난 및 사회적재난 등으로 고통받는 재난 이재민,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심폐소생술(CPR) 보급, 청소년인성함양을 위한 RCY 활동 등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에 사용된다.

적십자사 집중모금 역시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62일간) 진행되며, 도민이 십시일반 참여하는 일반성금은 관광지 할인권을 함께 동봉해 참여율을 높인다.

적십자사는 코로나19 장기화, 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2023년도 모금이 예년에 비



제주사랑의열매는 지난달 30일 제주도청 로비에서 희망2023 나눔캠페인 출범식을 진행했다.

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중모금에 최선을 다하면서 연중모금을 통해 47억원의 모금실적을 달성한다고 다짐했다.

▶올해 크리스마스 실은 'SON' =올해 대한결핵협회의 크리스마스 실(Christmas seal)의 주인공으로는 손흥민 선수가 선정됐다. 2022년도 크리스마스 실 '꿈을 향해! 세계를 향해! 손흥민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실'에는 축구 경기를 하는 손흥민의 다양한 모습이 담겼다. 올해 크리스마스 실 모금은 결핵예방법에 따라 질병관리청 승인 아래 진행되며 목표 모금액은 30억 원이다. 모금은 내년 2월까지 진행된다. 결핵협회 소풍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카카오톡 스토어에서도 구입이 가능하다. 모금 참여로 조성된 결핵 퇴치 기금은 취약계층 결핵환자 발견·치료 지원, 학생 결핵환자 치료 독려, 결핵균 검사와 연구, 저개발국 지원 등 재원으로 사용된다.

▶현웃, 현책으로 희망을 = 집안을 바라보면 손길이 닿지 않은 물건들을 제법 발견

할 수 있다. 전국 곳곳의 '아름다운 가게'는 이렇게 평소 쓰지 않는 물품을 기다리고 있다.

아름다운 가게는 기증한 물품을 판매한 뒤 얻은 수익금을 국내외의 소외 이웃을 돕는데 쓴다. 기증 가능한 물건들로는 주방용품(식기류, 냄비, 미사용 수저세트), 미개봉 식품류, 생활세제(밀봉포장·유통기한 6개월 이상), 미사용 침구류, 악기류(바이올린, 첼로, 기타 등), 소형 가구, 소형 운동기구, 가방·신발, 선글라스, 안경, 시계, 장난감, 오염없는 카시트, 도서, 헌옷, 가전제품 등이 있다. 단 입으로 부는 악기, 유통 기한이 지난 제품, 헌옷 중에서는 착용했던 속옷, 잠옷 등 재차 사용하기 곤란한 것들은 기증 받지 않는다.

기증품 수량이 3박스 이상일 경우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기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제주에는 아름다운 가게가 제주시 노형동, 일도1동, 서귀포시 서흥동 등 3곳에 들어서 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영화觀

우리가 겨울을 지날 때

오성호 감독의 장편 데뷔작 '그 겨울, 나는'은 삶의 겨울을 통과하는 스물아홉 동갑내기 연인들이 어느 겨울을 지나가는 이야기다. 여름 청춘 영화와는 다르다. 심지어 크리스마스 시즌을 배경으로 하는 로코 장르의 작품도 아니다. 이 계절은 낭만이 끼어들 틈 없이 싸늘하다.

'그 겨울, 나는'의 주인공 둘 모두는 취업 준비생이고 부모님이 원치 않아 작은 집에서 비밀 동거를 하고 있으며 서로 사랑하지만 기댈 수 있는 미래도, 배경도 없는 아홉 수의 청춘들이다. 따지자면 혜진 보다는 남자인 경학 쪽 사정이 더 여의치가 않은데 오히려 더 단단한 성격으로 저질러버린 대출의 상환금도 갚아 나가야 한다. 한 달에 백만 원이 넘는 돈이 경학에게 쉬이 리 만무하다.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던 경학은 시험을 포기하고 친구에게 중고 오토바이를 사서 배달이라는 직업을 택해 세상이라는 겨울로 나선다. 혜진은 원하던 취업에 실패하고 차선을 선택해 경학과는 또 다른 세상에 발을 디딘다. 찢어진 패딩을 입고 도로를 달리는 경학과 단별 코트로 낯선 공간 안에 설 자리를 찾는 혜진. 두 사람엔 시차가 생기기 시작하고 삶의 오차 범위는 줄어들지 않는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겨울을 겪어야 한다. 계절의 어김없는 방문에 더해 몸이 움크러지고 뻣뻣해지는 공지의 시기 또 한 불췌불췌 찾아온다. 영화 속 잦은 불행 앞에서도 불만을 줄일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사랑뿐이다.

하지만 사랑이 얼마나 간단한 감정인지 알고 있느냐는 주인공 어머니의 말처럼 겨울의 연인들 앞에서 사랑은 이상하게 사치스러운 감정처럼 휘둘러진다. 가장 뜨거운 것이 순식간



영화 '그 겨울, 나는'.

에 차갑게 돌아서기 좋은 계절도 겨울이라는 매서운 진실을 영화는 피하지 않고 물끄러미 쳐다본다.

'그 겨울, 나는'은 사람이 어떻게 변하느냐고 고전적인 질문에 답하는 영화다. 변할 수 있다고 사랑도 계절처럼 변할 수 있다고, 우리는, 누구든 언제든 사랑하고 상처 입고 아물 수 있다고, 영화는 이제는 사어처럼 느껴지는 진심과 진짜를 위해 지켜보고 담아내는 과정을 묵묵히 완성시켜 나간다. 이렇다면 진부하다고 여겨지는 것들과 정면 승부를 펼치는 영화가 '그 겨울, 나는'이다.

'연애경험', '눈물' 등 단편작업을 통해 가난한 사랑 노래라는 클리셰를 정면으로 다뤘던 오성호 감독의 욕심에 이 작품으로 부산국제영화제 올해의 배우상을 수상한 배우 권다함의 사력을 다한 체화, 걸그룹 포미닛 출신으로 '생일'에서도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였던 배우 권소현의 섬세하고 안정적인 호흡이 더해져 매섭게 뜨거운 한 철을 온전히 그려내는 영화 '그 겨울, 나는'.

단단한 한국 독립영화의 매력, 오성호라는 주목할 만한 감독의 개성, 그리고 권다함, 권소현이라는 두 배우를 향한 기대감까지 선사해주는 이 겨울의 선물 같은 영화다.



진 명 현
독립영화 스튜디오 무브먼트 대표(전문가)

수축 상 행정안전부장관표창



변 동 현

행정안전부장관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외사촌 일동

수축 상 보건복지부장관표창



윤 세 찬

보건복지부장관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대륜동주민자치역대위원장협의회

이어도 및 제주 해양 문화자원 홍보와 미래세대 전승을 위한

2022 이어도 청소년 문화예술 경연대회

일 시 | 2022.12.16 (금) 16시
장 소 | Be IN:(비인) 공연장



※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민간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